

‘장애인들의 행복 나눔터’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개관

49억원 예산 투입 3개동 1135㎡ 규모 우산공원 남쪽 조성

수어통역센터 등 이용시설과 장애인 콜택시 등 입주 예정

영광군은 지난 21일 지역 장애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기념하는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은 이개호 국회의원, 김준성 영광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장애인 관련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 커팅

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김준성 군수 민선6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은 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개동 1,135㎡ 규모로 영광 최고의 입지로 평가받는 우산공원 남쪽 자락에 조성됐으며 예산 중 10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확보

하여 군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은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광읍 대신지구에 있던 기존 장애인복지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과 넓은 주차공간을 조성했다.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은 앞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장애인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 아카데미(평생교육), 수어통역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의 이용시설과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장애인 체육회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우리군의 장애인복지의지와 미래전략을 상징하는 건물이자 장애인의 화합의 상징인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군민이 장애



인구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장애인복지 1등 군으로 도약 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재활·정신 장애인 한미음가족 행사 성료

무안군은 21일 재활·정신 프로그램 참석자 및 가족 100여명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며 사연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재활·정신사업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기 위해 한미음가족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의 제1부는 동영상 통해 한해를 돌아보는 것으로 꾸며졌으며, 제2부에서는 레크리에이션, 팀별게임, 트롯가수와 판소리 공연, 장기자랑 등 “행복 나누기 희망더하기”를 주제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활발한 재활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해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구례군장애인복지관, 공감·소통으로 하나되는 힐링여행

충남 부여군·예산군·전북 임실군 2박 3일 여행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8일~20일 2박 3일 동안 충남 부여군, 예산군, 전북 임실군을 여행하는 ‘2019년도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역사문화·자연탐방을 통해 소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공감과 치유 탐방’은 장애인과 가족, 10대에서 80대까지 연령층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함께 가는 모든 이들이 한 가족이 되어 뜻깊은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노 부부가 부소산성과 낙화암의 단풍길을 걷고, 서로의 투박

한 손을 꼭 잡고 황포돛대 유람선에 오르는 걸 도와주며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는 모습에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행사 둘째 날 레크리에이션은 부여군의 자원봉사자 부부가 진행하였다. 이 부부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부인이 간질(뇌전증)장애를 겪으면서 25년의 직장생활과 두 아이 엄마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례를 발표하며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고 남편의 흥겨운 색소폰 공연으로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두 아들과 함께 참여한 지체장애인 임모씨는 “구례에서 보기 힘든 사과따기와 사과파이 만들기 등 여행일정 동안 내내 즐거워하는 두 아들을 보며 백제문화재를 볼 수 있는 부여의 체험학습 나들이 기회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충남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강진군 도암면 민관복지협력 배우려고 충남에서 왔습니다”

서천군 서면지사협 도암면 벤치마킹 방문



강진군 도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열정과 사업을 배우기 위해 충남의 한 지자체에서 도암면을 찾았다.

충남 서천군 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홍성갑, 김형전) 위원 15명이 지난 20일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강진군 도암면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이상식 도암면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신환석 도암면역 맞춤형복지팀장의 협의체 사업성과 브리핑,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특히 도암면협의체의 어르신 틀니관리 지원사업과 거

동불편 장애인 택시쿠폰 지원 사업을 높이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상식 도암면장은 환영사를 통해 “도암지사협이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1년 전 서면협의체를 방문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이번에는 서면협의체에서 우리 도암면을 찾아주셔서 더욱 의미있다”며 “나누고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의 좋은 사례가 전국으로 더 많이 퍼져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홍성갑 서면장은 “작년 10월 도암면에서 우리 서천군 서면을 방문하고 정보를 교환한지 겨우 1년 밖에 안됐는데 탄탄하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내고 계셔서 깜짝 놀랐다.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여러 가지를 배우고 간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